

2026년 10월 6일

Hana FX Daily Letter

글로벌 강달러에도 무거운 환율 상단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강달러와 저가 매수세에 상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38~1,350원

- 연휴 기간, 미 비농업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서비스업 물가 상승세와 유로존 재정 불안 이슈로 인한 유로화 약세 영향이 겹치면서 달러 강세 나타남. 또한, 수급 측면에서는 저점 인식 속에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는 달러/원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지속 기대감과 더불어, 미-이란 협상 진전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완화된 점은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4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5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1.8원 내린 1,342.4원 마감. 2일, 유럽발 금리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 1,36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수급상 매도세 유입 및 미 고용 부진에 따른 약달러에 1,344.2원으로 하락 마감. 이어 5일에는 대체공휴일로 인해 거래량 제한된 가운데,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에도 유가 하락 영향 등에 추가 하락해 1,340원대 초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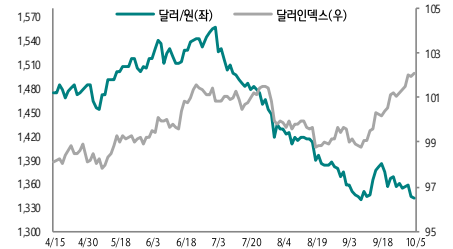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성장 차별화 전망 속에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짐
- (유로-달러) ECB 당국자가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우려하며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정책당국의 엔화 안정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등에 엔화는 약세 흐름을 보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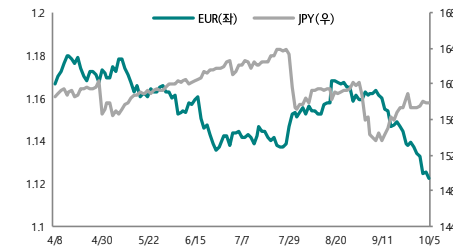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국채 금리 움직임과 FOMC의 사록, 수급 여건 등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9만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약 9만명)를 크게 밑돌았고, 실업률도 예상(4.1%)을 웃도는 4.2%를 기록. 최근 물가 둔화세에 이어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인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고용지표마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달 FOMC 금리 동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음. 또한, 시장은 금주 공개될 9월 FOMC의 사록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단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한편, 프랑스의 재정·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 이는 유로존 전반의 금리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는 한편 ECB의 긴축 전망은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대외 여건이 강달러를 자극할 경우, 원화 환율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감이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제한해 줄 전망. 상기 대내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주에도 달러/원 환율은 다소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4.5	1,347.2	1,340.0	1,340.8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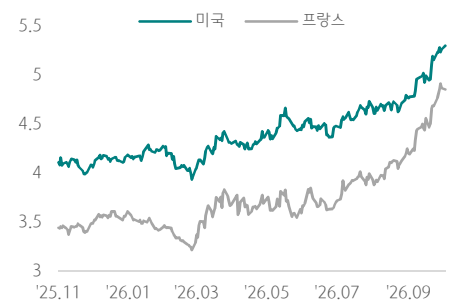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223	157.94	6.7037
전일대비	-0.0032	+0.08	-0.0027
재정환율	1,506.65	850.02	200.2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5:35	우에다 BOJ 총재 연설		
18:00	유로존 8월 소매판매(MoM)	0.2%	-0.6%
21:30	미국 8월 무역수지	-102.1b	-88.6b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